

P L A N T I N G H A P P I N E S S

*PLANTING HAPPINESS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뉴스레터 브랜드입니다.

2017 vol.2 (Total vol.54)

뉴스레터 vol.1 한 줄 후기

Leader's Column – 최인철

Cover Story

Special Session – 행복수업이 맥을 이어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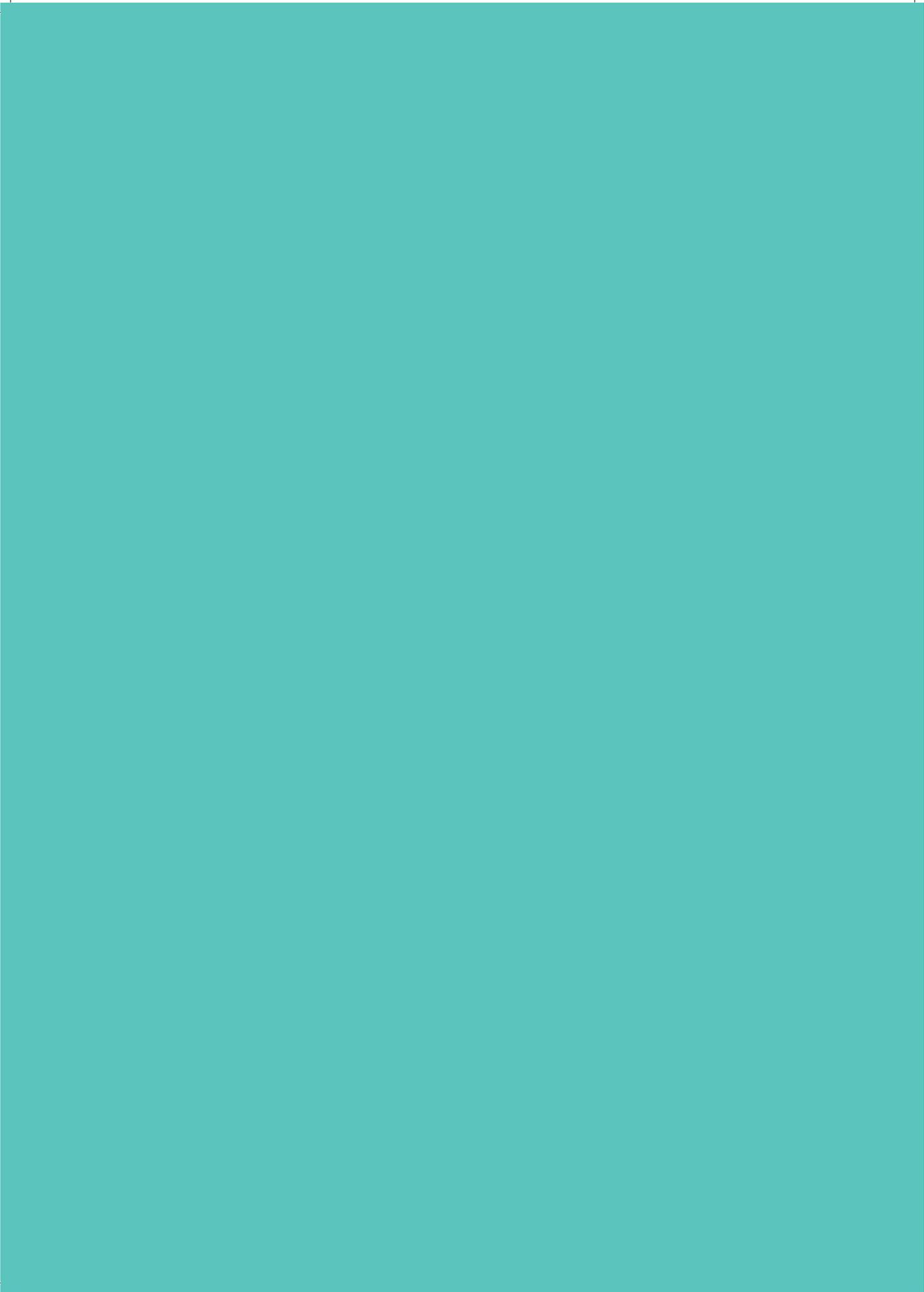
Take a Closer Look – 제 54회 스승의 날

Story Highlights

Case Based Learning

Upcoming Events

Center News



뉴스레터 vol.1 한 줄 후기	2
Leader's Column – 센터장 최인철 (여행하는 자가 누리는 삶의 품격)	3
Cover Story – 연구원 이민하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5
Special Session – 행복수업이 맥을 이어가다	8
Take a Closer Look – 제 54회 스승의 날	
– 교사 강혜명 (한 없이 기쁜 자축의 날)	18
– 중학생 박승현 (스승의 날 감사일기)	19
Story Highlights	
– 교사 윤미숙 (마법이 필요한 관청은 대한민국 교사)	21
– 교사 조수영 (행복한 아이의 비밀)	24
– 대학생 이권철 (행복의 원리로 살아가다-몰입하기 편)	28
Case Based Learning	
– 교사 반주영 (Sand Art로 감사 메시지 보내기)	31
– 중학생 이현종 (감사일기)	35
Upcoming Events	38
Center News	40

(최인철의 프레이밍)

여행가는 자가 누리는 삶의 품격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최인철 센터장

어떤 여행은 인생을 바꾼다. 화가 파울 클레에게는 1914년 아프리카 튀니지로 떠난 2주간의 여행이 그랬다.

그 짧은 여행 기간 동안 클레는 무려 35점의 수채화와 13점의 데생을 그렸다고 한다. 영감의 유성우(流星雨)가 쏟아져 내린 셈이다. 그때의 영감은 클레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 여행에서 돌아온 지 20여년이 흐른 후에도 튀니지 여행과 관련한 20여 편의 작품을 더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여행이 다작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여행의 경험은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힘도 있다. 1850년부터 1945년 사이에 태어난 피카소, 클레, 칸딘스키, 워홀, 고흐 등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모던 아트의 슈퍼스타 214명의 생애와 그들의 작품 경매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화가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여행 중에 그린 작품의 경매가는 일상 시기에 그린 작품보다 평균 7%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기록을 경신하는 이들 미술품의 경매가를 감안하면 7%는 어마어마한 차이다.

새롭고 낯선 환경을 '의도적'으로 접하려는 노력의 대가가 작가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외부와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지나치게 동질적인 문화를 추구했던 사회일수록 지식과 예술의 침체기를 겪어왔다. 반면 외부와의 접촉을 활발하게 시도했던 사회는 새로운 사상과 예술을 역사에 남겼다.

외부 세계에 대한 개방성이 문화 발달에 끼치는 영향은 가까이 있는 일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580년에서 1939년 사이에 일본에서 이름을 떨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지, 외국인 스승을 둔 적이 있는지, 외국 여행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일본을 방문한 유명한 외국인이 있는지 등 일본이 각 시기별로 외국 문화에 얼마나 개방적이었는지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외국 문화와의 접촉 정도가 각 시기별로 예술, 사상, 의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론 일본의 성취 수준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문화 개방성이 일본의 성취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한발 더 나아가 그 효과가 세대를 걸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도 얻어냈다. 다시 말해, 현 세대의 문화 개방성이 후속 세대의 성취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알아낸 것이다.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주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요즘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폐쇄적인 사람들끼리의 폐쇄적인 교류가 빚어낸 수치를 경험한 우리에게서는 유독 더 그러하다.

개방성(Openness). 심리학에서는 이를 “한 개인의 정신적 그리고 경험적 삶의 넓이와 깊이, 그리고 독창성과 복잡성”이라고 정의한다. 의식의 개방성과 경험의 개방성, 인간의 품격을 판단하는 데 이만한 잣대도 없다. 편협한 사고, 외부 세계와의 단절, 새로운 사상과 예술에 대한 무관심, 동일성에 대한 압력은 우리의 정신을 폐쇄적으로 만든다. 그런 조직과 사회에서 혁신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물론 애초에 개방적인 사람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더 시도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거꾸로 우리 안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도 명확히 보여준다. 이주한 과학자들의 연구가 본토 과학자들의 연구보다 더 독창적이라는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친숙한 환경에서 비슷한 사람들과 유사한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좋다. 예측 가능한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도시의 공기’가 없다. 중세 농노들이 도시로 도주하거나 이주하여 느꼈던 자유와 경쟁과 개성의 공기가 없다. 파격을 꿈꾸고 새로운 사상에 마음을 여는 것을 장려하는 공기가 없는 것이다.

여행과 이주를 보는 우리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한다. 여행과 이주는 단순한 레저나 생계를 위한 고육지책만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는 확장된 자아, 개방적 자아를 심어주는 일이고, 사회에게는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이다. 무엇보다 삶의 품격을 세우는 일이다.

이동을 꿈꿔야 한다. 소수를 품어 안고,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 이주자, 이단아를 단죄하여, 동질성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멈춰야 한다. 이사를 하든지, 제3의 공간을 만들든지, 여행을 하든지, 하다못해 다른 기관으로 출장이라도 가야 한다. ‘이주하는 자의 이점(The mover’s advantage)’이라는 어떤 논문의 제목처럼 이동하는 자, 여행하는 자에게는 열린 의식이라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



출처 : **한겨레** 최인철의 프레임 / 2017.03.23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연구팀 이민하 연구원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즐긴다는 것은 그 대상에 흥미를 느끼는 것이 동반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흥미는 그 흥미를 느끼는 대상을 하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ⁱ 굳이 심리학 연구 결과를 따지지 않더라도 누구나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것을 하기 위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난 겨울에는 공유를 보려고 ‘도깨비’의 방영시간만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재빨리 TV 앞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반대로 흥미가 없는 일은 너무나 지루하고 하기 싫은 경험도 누구나 해 보았을 것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축구 시합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신나는 일이지만,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땀벌에서의 중노동일 뿐이다.

i 공자의 “논어” 에 나오는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한다.

ii Schiefele, U. (1991). Interest, learning, and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26(3-4), 299-323.

그렇다면, 흥미는 어떻게 생길까? 심리학자들은 흥미를 개인적 흥미와 상황적 흥미 2가지로 흔히 분류한다.ⁱⁱⁱ 개인적 흥미란 개인의 특성에서 파생된 흥미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성격적 특성인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면에 흥미를 느낀다든지, 애매한 것보다는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항보다는 정답이 딱 떨어지는 수학을 더 좋아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상황적 흥미는 주변 상황에 의해 유발된 흥미를 의미한다. 사춘기 시절 잘생기고 자상한 수학 선생님 덕에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 흥미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흥미를 끄는 요인과 흥미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매력적인 수학 선생님과 수학을 좋아하는 개인적 특성 모두 수학에 흥미를 끄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수학을 좋아하는 개인적 특성이 흥미를 지속시키는 데에 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매력적인 수학 선생님 덕에 수학을 좋아하게 된 경우, 수학 선생님이 바뀌면 수학에 쉬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말이다.

이러한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 심리학 연구들이 그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인적으로 가치있게 또는 자신과 관련된다고 여기는 일에, 사람들은 더 흥미를 느낀다. 한 심리학 실험연구에 따르면, 한 학기동안 정기적으로 과학시간에 배운 것을 요약한 학생들에 비해, 과학과 자신의 삶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쓴 학생들이 학기말에 더 좋은 과학 성적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후자의 학생들이 에세이를 쓰는 동안 점점 과학을 자신에게 가치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다.^{iv}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우리 나라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축구에 대한 열기는 이 연구결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평상시에는 축구에 관심이 없다가도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시합을 하자, 집합주의적인 우리 나라 국민들의 성향상 마치 자기 시합이라도 된 양 전국 방방곡곡을 뿔뿔로 가득 채운 것이다. 작년의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에 20-30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관심을 가지고 분노^v했던 이유도 자기 또래의 평범한 사람들이 흔히 다니는 장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살인을 보고 자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자신과의 연관성을 느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둘째, 사람들은 무언가를 함께 할 때, 혼자 할 때보다 더 흥미를 느낀다고 한다.^{vi} 혼자 하면 지

iii Hidi, S. (1990). Interest and its contribution as a mental resource for learning.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0(4), 549-571.

iv Hulleman, C. S., & Harackiewicz, J. M. (2009). Promoting interest and performance in high school science classes. *Science*, 326(5958), 1410-1412.

v 한국일보 (2016).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은 왜 '살아남았다' 라고 쓰나". 5월 19일. <<http://www.hankookilbo.com/v/d308543c366347e88b52e54b02ebd3e8>> (2017년 6월 20일 - 접속날짜).

vi Carr, P. B., & Walton, G. M. (2014). Cues of working together fuel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루할 만두 빚기도 용기종기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할 때 좀 더 즐거운 것이다. 더하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집합주의적인 사람들은 낯선 사람보다는 친한 친구와 함께 할 때 지루한 일도 더 흥미롭게 느꼈다고 한다.^{vii} 반면에,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은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흥미를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즉, 당신이 집합주의자라면,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당신이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는 정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취미 동호회가 활성화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함께 하는 데에서 오는 흥미와 즐거움을 이미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삶에 흥미를 잃는 것이 우울증 증상 중의 하나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흥미는 당신의 삶을 잘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당신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탐지하는 센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당신 자신이 흥미를 지닌 대상을 잘 파악해서 그 흥미를 지속해 나가고, 동시에 흥미를 느끼는 대상을 새로이 발굴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삶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 보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실제로 해 보지 않고서는 자신이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해야만 하는 일(예: 건강을 위한 운동)에 흥미를 가지는 것 또한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하다. 당신이 새해 결심 중의 하나인 운동을 게을리 하고 있다면, 오늘 나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운동이 왜 나에게 중요한지 되새겨 보고,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같이 운동하자고 이야기하라고. 1년 후 오늘 당신은 운동천재를 능가하는 운동을 즐기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

이민하 연구원



여자축구 국가대표 김우리 선수와 함께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3, 169-184.

vii 박지영. (2006). "Work versus relationships among individualists and collectivists",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대한민국, 69쪽.

Interview

행복수업이 맥을 이어가다



행복교사 최현주 선생님은 또다른 행복교사 오진아 선생님이 2011년 행복수업을 진행하며 가르쳤던 제자를 최근 교생 실습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제자들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고 그 중 몇몇은 교직의 길을 꿈꾸어 행복수업의 맥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인연으로 6년만에 다시 한 자리에 모인 오진아 선생님과 다섯 명의 제자들의 인터뷰를 여기 소개합니다.

일시 : 6월 17일 오후 12시~1시 장소 : 서울대 글로벌교육센터(38동) 지하1층(행복대학 6기 졸업식장)

Interviewer : 행복연구센터 박복미 연구원

Interviewee:



한인선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16학번



오진아 선생님
행복교사



정은이 (교생실습생)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16학번



정은이 학생을
교생실습에서 발견하신
행복교사 최현주 선생님



가다영
한양대 나노반도체공학과 17학번



최하은
숙명여대 중어중문학과 17학번



김효신
한양대 정책학과 16학번

Q. 선생님과 처음 만났을 때가 몇 년도였나요?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가다영 학생(이하 가): 중2때 처음 선생님을 뵈었고, 중3때 담임이었어요.



오진아 선생님(이하 오): 선생님이 중2때 가르쳤나?



가: 가르쳤어요. 11년이니깐 6년 전 얘기네요.



정은이 학생(이하 정): 저도 11년 2학년 때는 도덕선생님으로 뵈고, 3학년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나머지 2명은 아니고.

존경하는 스승님이셨나봐요?



가: 고3때는 핸드폰이 없어서……. 고2때 마지막으로 봤어요. 스승의 날에. 학교가 멀어서 다른 친구들처럼은 못 찾아뵈고 스승의 날, 내보내주는 날에 찾아갈 수 있었어요.

Q. 선생님이 정말 행복연구센터에서 전설, 시초이신데 제자들을 또 다시 행복수업으로 만나시게 되었네요. 행복수업을 할 때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전체: 감사일기.



가: 부끄러운 때였지만, 재수할 때 썼어요. 우울증이 심하게 왔는데 병원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어떡하지 하다가 우연찮게 어떤 사람이 네이버캐스트에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글을 보고, 다시 한 번 해볼까 생각이 들어서 한 달 정도 썼어요.

그래서 위안이 되었나요?



가: 위안도 되고,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감사일기 외의 에피소드는 또 뭐가 있나요?



정: 감사일기가 제일 기억에 남고, 또 재능 나누기라는걸 했어요. 그냥 쓰면서 끝나는게 아니라 진짜로 친구한테 기타를 배워서 처음 대학교에 왔을 때 밴드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공연도 하고, 배웠던게 도움 되었어요.



오: 신기한게 3명은 감사일기를 잘 썼어요. 다영이를 아끼긴 했는데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넌(가다영 학생) 쓰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했죠.



한인선(이하 한): 진로 만들기. 열심히 했었죠. 그때는 마케팅이었지만……. 어릴 때 사진도 넣고, 성장과정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집에 있어요. 너무 잘 만들어서 버리기가 싫어서. 또 다른건……. 큰 상자 만들기?



오: 맞아, 택배 큰 거 오면 상자 버리지 말고 가져오라 했지, 행복교실을 즐길 수 있기 위해 장난감을 채워놓았어요.



가: 뽕망치!



오: 악어도 넣고 게임도 넣고, 그런데 택배상자에 들어가라고도 했었나?



가: 맞아, 들어갔었어요.



한: 진정 좀 하라고.

너무 재밌었겠네요.



오: 행복교실을 따로 학교에서 빈 교실을 쓰라고 해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상자가 기억에 나는 거네요.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할 때 만지기, 공작 수업을 하는데, 그게 기억나서 초등학교에서 활용방안을 생각해봤어요.



(최에게) 무엇이 기억에 남나요?



최하은(이하 최): 감사일기. 시작은 1학년 때부터 했는데 3학년 때 집안에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힘들었어요. 그 때 꾸준히 써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오: 지금도 쓰고 있어서 한 번 찾아서 가져와보라고 했어요.

겉만이라도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해도 될까요?



최: 상관없어요. (다이어리를 꺼냄) 이건 1학년 때 행복수업에서, 이건 3학년 때 다이어리, 다이어리랑 같이 쓰는 거라. 밑이랑 위랑 이렇게 구분해서 적었어요.



오: 스승의날에 감사하게 찍어서 문자로 보내줬는데, 제가 엄청 감동했죠.



최하은 학생이 중학교 1학년부턴 쓴 감사일기장 (일부)

Q.

중2, 중1때 만났는데, 학창시절 행복수업은 어떤 의미였는지, 그 때의 마음을 회상해볼 수 있을까요?



최: 그 당시에는 저희가 행복수업 하는 동안 다른 반은 그냥 영화보는데 부러웠는데, 돌아보니 남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대학 면접에도 도움 되고, 학교에서도 전파하고 다니고 많이 추천해줬죠.



한: 편하게 힐링하는 그런 느낌? 교실이 편하게, 재밌게 꾸며져 있고, 수업시간에 놀고 있다가 수업도 듣고.

(정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정: 사실 중학교 때는 바람직한 학생이 아니어서……. 원래 하던 수업이 아니니깐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기한걸 많이 하고, 사랑하는데 필요한 활동들을 다 한 번 돌아보니까 그게 다 쌓여서 큰 재산이 된 것 같아요. 친구들과 같이 활동하는게 많아 친해지고 진로도 다시 생각해보고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가: 담임 선생님이었을 때가 기억이 많이 나요. 행복수업 때도 흥미하기처럼 챗터별로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가장 기억이 남는 담임 선생님이예요.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조금 부족한 아이, 자기 관리도 잘 안되고……. 그 애가 따돌림이 있을 것 같으니 다 같이 목욕탕 가서 놀고 오게 했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주 훌륭하네요.



오: 저는 같이 안 갔는데요 뭐.



가: 짬질방 처음 가보는 친구였더라고요.



오: 외로웠던 친구라 손내밀어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마음이 울리네요.



가: 중3때 고등학교 입시 때, 집안분위기도 안 좋고, 많이 흔들리는 시기였는데, 상담도 잘 해주시고 항상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오진아 선생님 상 받으셔야겠네요.



(김효신 학생 입장)

새로 오신 분 소개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김효신 학생(이하 김): 김효신, 한양대 정책학과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행복수업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때의 기억을 말씀해주세요.



김: 사실 스티커 준다니까, 수행평가 때문에 한건데……. 수행평가로 생각하다 보니깐 효과가 떨어지고, 관심이 없고. 그런데 하다보니깐 하나의 습관이 됐어요. 감사일기 쓰기, 관찰일기 쓰기도 있었네요. 활동이 생생히 기억나요. 새로운 경험, 다신 못할 경험이었지요. 제가 고등학교를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일동 웃음) 그런데 거기서도 이런 교육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직 입시 위주로만. 거기서는 또 막상 **대학 진학을 위해 인성교육을 하는데, 일회적 차원의 교육이에요.** 지속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이 교육이 많이 보급된다면, 애들 입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효과를 실감하진 못하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 도입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아쉬움이 남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김: 용서하기. 유영철 사건 피해자 부모님이 용서하는 내용의 영상을 시청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저런 쓰레기를 어떻게……. 어릴 때 하지 못했던 생각에 안목, 시야가 트인 것 같아요. 용서하기가 가장 컸던 것 같고, 재미의 측면에서 보면 음미하기 때. 초콜릿 몰래 많이 먹었어요. (웃음)

행복한 기억만 있는 것 같네요. 지금 행복수업을 받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성장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듯해요. 성장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문득 이래서 감사하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는게. 쓰면서 그게 놀라워요.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게 놀라워요. 다른 관점이 생기니까.



한: 그렇게 많이 기억 남지는 않지만, 교사가 될 거니까, 이 수업을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대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교사가 될지 생각해나가는 시기잖아요. 저만의 특색이 있는 수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행복수업을 모티브로 해서 교실을 구성하게 돼요.

(정에게)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정: 인성적인 측면.



오: 인성이 안 좋아서?



정: 좋다고 볼 수는……. (웃음)

(가에게) 재수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셨나요?



가: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정말 극강의 행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힘든 일, 새로운 상황을 많이 겪어서, 한 번 떨어지니 혹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행복수업이 행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바운더리가 된 것 같아요.

이건 준비한 것 같네요.



오: 학생회장이라 말씀씨가 좋아요.



(김에게) 어떤 측면에 도움이 되었나요?



김: 제가 중학교 때는 학업 측면에서 최고라 생각했는데, 고등학교를 가니 돈 많은 학생도 보고 공부 잘하는 학생도 보고……. 저는 제가 당연히 서울대 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못가서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 두려움이 많아요. 바쁘게 살다보니 행복을 생각할 겨를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시간이 많았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나서 보니 진짜 실생활에서 적용을 안 하면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인,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 교생 나갔을 때 그 얘기를 한 번 했어요. 행복 수업이 중2때 한번하고 끊겨요, 중3때. 고등학교 때는 기회가 없고,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재량으로 수업을 해요. 애들이 그걸 했는데 1년 뒤에는 없어지고, 중학교에도 없어지고, 그렇게 차단시켜버리면 하는 애들만 하는 거고 저희 같은 애들은 기억 속에 묻고 살아가는데. 어릴 때부터, 저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쪽 해나가면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학년 때부터 시행해야 한다. 그 얘기를 주변에 많이 해요. 회의적인 시각의 선생님도 있어서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들 입장에서 보면 하는 게 좋은 듯해요.



Q.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 들어볼게요.



오: 너희들 선생님 되면 행복수업 하고 싶을걸? 교사대상 연수하니깐 이거 받으면 재밌겠다. 그땐 내가 또 특별히 강의를……. (일동 감탄) 저도 행복수업을 하면서 처음에 반신반의하면서 했어요. 도덕교사로서의 의무로 했는데 하다 보니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는 지금 휴직을 2년째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행복수업 하던게 리마인드 되면서 스며드는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각자 다른 선택의 고민이 있는 거고, 거기에 행복수업이 도움이 돼요. 계속해서 나에게 20대의 질문을 하면서 끝까지 갖고 가야 해요.

두 분께서는 행복수업의 맥을 이어가야 하겠네요. 이번엔 선생님께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볼게요.



정: 궁금한게 있는데, 선생님은 행복대학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오: 담당 과목이 도덕이었고, 교직생활을 하게 되면서 도덕 책 말고 뭐 없을까 찾다가 하버드에서 행복학이 생기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게 없을까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데, 서울대학교에서 행복 연구만 하고 있다가 곧 교사 연수를 할 것이라는 기사 내용을 봤어요. 전화를 하니 올 여름에 시작할 거라고, 근데 연락을 안주시더라고요. (일동 웃음) 행복에 대한 느낌이 이거다 축이 왔죠, 해보고 싶다. 적극적으로, 처음 들어온 시범학교에서 선생님들 다 잘 모르는데도 팀을 짜서 신청해서 행복 수업을 했죠, 그때 정은이가 행복수업 소감인터뷰(2012 여름)에서 말했어요. “전국에 다 했으면 좋겠어요!”



가: 전 선생님 하는걸 수업이라 안했는데. 후문에는 선생님이 아니라 강사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수업이 아니고, 방과 후 수업도 아니고, 처음 오신 선생님이 수업하시니 강사인줄 알았죠. 저희는 도덕을 선생님한테 안 배웠어요. 저희가 배웠던 도덕은 이런거죠. 인내, 인내란 무엇인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선생님한테서 그런걸 배우니 처음 보는, 신선한 수업 방식이라 생각했죠.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실 말씀이 있나요?



김: 감사하다고…….

훌륭하신 분이네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중요하고 훌륭한 일을 하신 듯합니다.



오: 다들 잘 따라와주어서……. 2~3학년을 함께 했으니 실컷해봤죠. 다들 여학생들이라 잘 따라오고, 잘 하기도 하고.



최: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서 그냥 지금도 선생님이 자랑거리예요. 저희 교수님에게도 자랑 많이 하고 그래요, 되게 큰 전환점을 주신 것 같아요.



한: 저도 감사합니다.

Take a Closer Look :

제 54회 스승의날 특집

한 없이 기쁜 자축의 날

동북중학교 행복교사 강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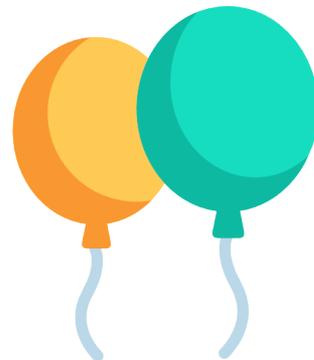


스승의날 특징 : 선생님편

2017.5.15 스승의날 본교 동북중학교는 학년별로 수련회를 17일까지 가는 날입니다.

올해 비담임이어서 학생들과 함께 떠나지는 않았으나 마침 일직 담당교사로 출근하여 요즘 보준기간이 지난 업무서류철 폐기처분 확인으로 바쁜 우리부서 연구부장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선생님과 분류과정을 함께하며 잔류학생들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부는 학교에서 훈련을 3학년 5명 중 한명은 수영연습으로 나머지 4명은 개인사정(주로 상위 학교 진학을 위해 스스로 학업에 열중)으로 인하여 교무실 옆 교실에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아침에 학생들이 약간 서운한 얼굴이 감지되었지요~ 운동장 스탠드에 집결하여 들뜬 1,2 학년과 제주도 여행을 위해 새벽에 공항으로 간 동료학생들을 떠올린 듯했어요~ 9시30분에 모두 출발한 후 한산한 교정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한 듯 책상에 앉아있는 아직은 어린 마음의 소유자인 잔류학생~ 새콤달콤한 간식카라멜을 건내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해마다 이 때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영재과학예술학교(일명 과학고)에 가는 것을 알게 되어 덕담도 해주었습니다. 수영선수에게도 훈련의 의지를 독려하며~^^

차차 차분하게 가다듬고 안정적으로 책상에 앉아있는 대견한 우리 학생들~ 점심에 나도 무척 출출한 김에 미리 준비한 도시락은 나중에 먹기로 하고 피자배달로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학생들도 기분 좋아하며 먹는 모습에~ 나도 흐뭇하였습니다. 당일날 폐기처분해야하는 문서를 정확히 확인 수합하여 교육청에 갔다 온 행정정보조사 선생님과 행정실 선생님과도 피자를 먹고 매일 학교 업무에 힘쓰는 행정교사 선생님의 한결같은 성실함에 깊이 감동하며, 수위실에 계신 선생님과도 피자를 함께 한 스승의날은 기쁜 자축의 날이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행복을 선택하며

1분평화명상을 실천하는 동북중 행복교사 강혜명 배상

스승의날 감사일기



스승의날 특집 : 학생편

송운중학교 박승현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2017년 5월 15일, 박승현

너와 나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속에서 배우며 자라난 사람들이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스승을 빼놓을 수 없다. 스승은 우리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준 분이다. 어떤 스승이라도 이런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스승들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또한 세상에서 살면서 스승들을 잊지 말고 또한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스승의 이름을 기억하자. 우리의 삶에서 배움이 없고 스승이 없다면 남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는 한 순간이라도 스승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바로 5월 15일 스승의 날도 존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땀에 자기 수준 때문에 한 것이라 하지만 그 결과는 다 스승이 기반을 닦아주었기 때문이다. 우리 감사하고 이날 꼭 이번 말고도 다음에라도 꼭 스승을 찾아가기 원한다. 그런 우리 되는 1-6반이 되자~~~^^



날짜 2017년 5월 15일

주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러

내용: 너와 나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속에서 배우며 자라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스승은 배움의 스승이다. 스승은 우리에게 시상을 불사하는 눈을
 주었다. 어떤 스승이라도 이런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스승들의 은혜를 감사하러 살고 또한
 세상에서 살면서 스승들을 잊지 말고 또한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스승의 이름을 기약하자. 우리의 삶에서 배움이
 있고 스승이 없다면 남는게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는
 한 순간이라도 스승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오늘
 바로 5월 15일 스승의 날도 존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
 은 자기 선생님에 자기 작은 배움에 한 것이라 하지만
 다 스승이 개학을 다 알아주었기 때문이다
 감사하고 이노래 이번 말고 다음이라도 꼭
 찾아 가기 원한다 그런 우리와는 6반이 되
 시.

승현이가 쓴 스승의날 감사일기



우리 명: ★ 스승이래는 ★
 그보다 뜻한 ★ 한 바디 ★

마법이 필요한 객찬은 대일본민국 과사!

목운중학교 교사 윤미숙

STORY HIGHLIGHTS

수업이 잘 안됐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수업은 잠 못 드는 밤을 만든다. 블록수업 90분 동안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통제하려고 했다. 속도의 차이를 느린 학생들에게 맞추려고 했다. 준비물이 부족한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 중2 병을 지나온 아이들에게 그들만의 특화된 에너지를 풀어 낼 순간이 필요하다는 걸 잠깐 잊었다. 월요일이라 기존 자체가 엄격했음은 또 어찌랴!

수업이 마음먹은 대로 풀려나가지 않으면 편도체의 과잉 충성으로 악수를 두게 된다. 잔뜩 긴장한 채로 눈에 거슬리는 것들만 짚어낸다. 자업자득! 종두득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안다. 잘 알고 있다. 먼저 제대로 못해놓고 힘 겨루기라니 참 못났다. 교사와 학생 사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권력자면서 마음은 버려두고 행동만 억압하려 했으니 KO 패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곱게 보이질 않는 아이가 두어 명 있다. 서운함마저 든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되돌아봄은 실종되었고 변명과 논리를 합리화하려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분위기의 확산은 빛의 속도라 집중하던 학생들의 동요를 유발하고, 어찌란 말이나! 고작 16살인 아이들인데, 못난 생각 끊으려 이불을 박차고 나와 컴퓨터 두들기며 셀프 토닥토닥한다.

파울로 그랑쥬(Paulo Grangeon)의 1600마리 판다 프로젝트로 동기 유발된 멸종 위기 동물 만들기 시작은 좋았다. 잘 되는 반은 노동요가 필요한지 폐창이 저절로 나오기도 했다. 리듬 맞춰 몸을 움직이며 열 손가락으로는 신기할 정도로 동물을 만들어 내었다. 신문지를 뭉쳐서 테이프로 고정하여 원하는 동물을 만들어 내면 된다. 처음 경험하는 것은 '난 못해!'라는 학습된 기억이 없어 누구든 자신 있게 접근한다. 그런 순간을 함께하는 것은 행복하다.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어깨 뿔을 곱하게 세워 올린다.

교사 한 사람이 교실 수업에서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은 삼십 여명이다. 행복수업 초창기에 행복연구센터의 모니터링을 받은 경험이 있다. <4장 비교하지 않기>를 주제로 했었다. 행복연구센터의 객원연구원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행복수업 컨설팅을 받고 싶었다. 여기저기 학부모대상, 교사대상 강의를 하고 다니던 때라 자신감도 있었다.

객원연구원은 되지 못했다. 5분 정도 행복수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만 주어졌을 뿐. 그때 수업한 자료를 묶어서 제출했더니 우리 청 행복수업 연구대회에서는 상을 주었다. 계속된 자료를 모아 작년에는 자유학기 수업 실천사례로 상과 상금도 받았다. 더욱 금금했었다. 객원연구원은 왜 될 수 없었을까?



행복대학 4기 시절이었나 보다. 우연히 답을 찾았다. 홍영일 교수의 수업에서 “일대 삼십이지만 그 외중에도 일대 일 수업하시는 분을 우리는 객원연구원으로 모시고 있다.” “지금 수고하시는 객원연구원분들이 다 그렇게 수업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 순간 전율했다. 일대 삼십이 함정이었구나! 일대 삼십으로 말하고, 웃음 주려하고,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지 면대 면 고민이 빠져 있었구나! 울림이 있었고 요즘 아이들은 일대 일이 아니면 자기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속상해하지 않게 되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던 아이가 위의 수업에서 “올라프 만들어도 돼요?” 올라프가 눈사람이면 어떠랴. 멋지게 만들었다. 화판의 앞 뒷면을 그려야 하는 모둠수업에서 자신의 차례를 오래 기다리던 아이를 위하여 화판을 세워 양면을 색칠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더니 두 녀석이 엄지 척을 했다. 준비한 테이프를 다 쓰고 빌려달라 못하고 보호색을 드리운 아이에게 건네준 테이프는 아이를 살려 놓았다. 그리고 보니 늘 그냥 하던 것이었고 일대 일은 가까이 있었다.

학기 초 재미있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생활과 직결되는 미술시간으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행복수업과 융합시켜 우리 학교 3학년의 문화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다짐했었다.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늘 고뇌하며 실천해 나가려 애쓰고 있다. 토닥토닥! 으쌰으쌰! 셀프 응원을 하며 풀잎처럼 다시 일어난다. 결국 오늘 밤 같은 날의 반복이다.

이렇게 자가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행복연구센터가 아낌없이 주는 것들에 있다. 행복수업 기초워크숍, 심화워크숍, 교사행복대학의 반짝이는 강좌들! 그리고 행복수업연구회 교사들이다. 날이 갈수록 서로의 힘이 연결되어 큰 힘을 만들어 상생하고 있다. 전국에서 달려오는 연구회 선생님들의 열정은 놀랍다. (사)행복가교의 출항을 위해 헌신하는 실행위원들과 이사진들의 수고도 존재의 기쁨을 안겨준다.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음이 신나고 뭐든 도움이 되고 싶은 의욕이 하늘땅만큼 넘쳐난다.

이제 충전이 끝났다. 수업의 달인이 아닐지라도 좋은 수업을 위하여 고뇌한다. 수행평가 마무리하고 행복수업을 시작해야할 때다. 전공수업보다 행복수업이 두려운 것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나의 행동이 일치하는가 하는 것에 있다. 교과서와 수업이 아니라 교사의 일상 모습에서 전파될 행복이 더 빠르고 쉽고 견고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잠 못 드는 난 아이들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들었다 놔다 할 수 있는 마법이 약간 필요하긴 하지만 좀 괜찮은 대한민국 교사다. 아니 괜찮은 대한민국 교사이고 싶다.



행복은 아이의 비밀

인천박문초등학교 조수영마리비안네타수녀

STORY HIGHLIGHTS



입학 후 학교에 온 첫 날.

“수녀님 몇 살이에요?”

“음 120살!”

“진짜요?”

“그럼 그럼.”

다음 날.

“수녀님 몇 키로예요?”

“음 백만키로!”

“진짜요?”

“그럼 그럼.”



이렇게 시작한 1학년 꼬맹이 헤인이와의 인연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제 2학년 땅꼬마 숙녀가 되었다. 오세암에 나오는 소녀처럼 앞머리에 귀가 보이게 자른 단발머리를 하고 매일 아침 뛰어와 안긴다. 아침 맛이를 하는 기쁨 중의 기쁨이다.

통통하고 넓직한 배에 볼을 대고 ‘아 포근해. 백만키로 수녀님!’ 하고는 내가 준 축복을 금새 갚아준다. 두 발을 모은 채 까치발을 하고는 두 손을 모아 있는 힘을 다해서 키 큰 내 머리위로 팔을 쭉 뻗는다. 나는 이 녀석 까치발로 애쓰는 모습이 귀여워서 키를 조금만 낮춰준다. 어느 새 ‘교장수녀님, 데따 많이 축뽀~!’ 하는 뒤돌아서 달려가는 헤인이를 보면서 생각한다. ‘사랑스러운 저 아이의 지금 저 순수한 행복을 어떻게 하면 지켜주고 더 키워줄 수 있을까?’ 헤인이의 일상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행복도 참 크기에 더욱 그렇다. 헤인이처럼 자기도 행복하고 만나는 이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성품의 비밀은 무엇일까?

아침 등굣길에 헤인이 같은 친구만 있는 건 아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해서 열어본 가방 속에는 내가 들기에도 버거운 두꺼운 학원 영어책에 보조교재까지 가득 들어 있다. 아이들이 가방 무게 때문에 뒤로 넘어갈 지경이지만 맛벌이를 하는 엄마는 아침부터 학원 책까지 챙겨서 학교에 보낸다. 울면서 올라오는 친구는 ‘아침에 늦장 부려서 엄마한테 야단맞았어요.’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아무런 표정이 없이 땅만 바라보며 오는 친구들은 특히 마음이 쓰인다.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슬펐어요. 가끔 그래요.’하기도 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다.

공개수업 시간에 자기가 대답을 해야 하는데 친구가 먼저 대답을 했다고 큰 소리로 한 참을 우는 친구를 볼 때 난감해 진다. 무엇보다도 친구가 없어서 쏠살같이 일등으로 밥을 먹고 도서관으로 뛰어가는 친구도 있다. 자기가 밥을 늦게 먹었을 때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을까봐 그렇게 빨리 먹고 가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한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한 사람이 풀 수는 없다. 올 해는 우선 내가 한 학년을 대상으로 행복수업을 해 보기로 했다. 5학년 부장선생님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행복수업 편성이 가능한지 의논했다. 총13회에 걸쳐서 각 반별로 26차시씩 시간을 얻었다. 지금까지 총4회에 걸쳐서 8차시의 행복수업을 했다. 심화과정을 통해서 열정적인 선생님들께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웹하드에 부지런히 올려주시는 자료들 또한 게으른 나에게는 요긴한 수업자료가 된다. 얼마나 감사한지!

올 1학기에는 자신의 강점 찾기부터 시작했다. 자기 강점 찾기를 하고 난 아이들의 나눔을 들으며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에 장난꾸러기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몇몇 친구들이 자기는 강점이 너무 많아서 뭘 고를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런데 평소에 나무랄 데 없다고 소문난 친구가 자기는 점수가 다 낮아서 강점이 없다고 실망하는 눈치여서 내심 당황하기도 했다. 교사가 바라보는 아이들과 스스로 느끼고 있는 아이들은 때로는 참 차이가 많이 나기도 했다. 그래서 자기 강점 찾기를 제일 첫 시간에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수업을 하고 난 다음 날 등굣길에 5학년 친구들에게 손 마이크를 입가에 대주며 '나의 강점은?'하고 물었다. 아뽀사..... 이럴 수가! '생각 안 나는데요.'하며 휙 지나가는 무심한 친구들 같으니라구. '바로 어제 수업을 했는데 글썄 그걸 기억 못하다니...... 최인철 교수님께서 매 시간 바로 이런 심정이시겠구나.' 했다. 그래서 2주 뒤에 맞이한 행복수업 시간에 기억을 되살려 꽃잎 다섯 개에 자기가 강점을 적고 바람개비를 만들어 달리기를 했다. 예쁘게 돌아가는 바람개비를 들고 달리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의 강점이 꽃처럼 피어나 세상에 퍼져나가는 상상을 하는 것은 참 즐거웠다. 땀을 뻘뻘 흘리며 재미있게 노는 아이들의 얼굴에도 행복의 꽃이 활짝 피었다. 참 예뻐 보였다.



신문지로 인간바퀴 만들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특성을 잘 볼 수 있었다. 계획부터 진행의 모든 단계를 모둠원들 스스로 하도록 했다. 모둠 친구들과 협동하면서 자신들의 강점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한 시간이다. 자로 쥘 듯이 붙여나가는 잔뜩 긴장한 꼼꼼이가 있는가 하면 너털너털 붙이면서도 즐거워하는 여유 만점의 친구도 있었다. 신문지의 두께, 길이, 어떻게 붙일 것인지 방법을 결정한다. 알맞게 테이프를 자르고 견고하게 붙이는 모든 과정이 좋은 공부가 되고 있음을 알았다. 수업을 마치고 소감을 들어보니 모둠 친구들끼리 계속 이야기하면서 만들고 같이 바퀴 안에 들어가서 굴리다보니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다고 한다.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함께 스스로 하는 것이 많아 훨씬 더 값진 것들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나눠준 친구들이 있어 감사하다.

애써 붙여둔 신문지가 조금 찢어졌을 때 다시 붙이면 된다며 모둠 친구들을 격려하는 친구가 있는가하면 쪽 찢어버리고는 서로 먼저 찢었다며 싸우는 모둠 친구들도 있었다. 이미 형성된 이 두 모둠친구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지 궁금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지닐 수 있을까? 작은 실수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성품을 기를 수 있다면 좀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과 강점 찾기에서 시작한 행복수업을 하면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복전도사였다는 생각이 스쳤다. 인간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간단하게 다섯 개의 단어로 요약해 두셨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자신을 잘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들이어서 행복하길 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기여하는 이들로 성장하길 빈다.

나는 아직 서툰 행복교사이다. 그러나 행복한 아이 헤인이의 비밀을 우리 친구들이 행복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찾고 배울 수 있도록 계속 할 것이다.



행복의 원리로 살아가다

-몰입하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학과 4학년 이권철



10년 전, 우리 집은 총성이 끊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불과 몇 년 만에 수천만 원의 카드빚으로 집안사정이 힘들어지고, 업히고설킨 채무관계로 인해 이곳저곳에서 협박전화까지 걸려오는 상황이었다. 앞친 데 뒷친 격으로 힘든 나날이 계속되자, 부모님은 늘 예민하신 상태로 고성이고 갔으며, 결국 말로만 듣던 빨간 딱지가 집안 곳곳에 나부끼는 상황에까지 치달았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집안가구 중 일부를 친척에게 맡기고, 주말 낮 시간대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집으로 찾아오는 카드사 직원을 피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집안사정이 갈수록 악화되자, 가족들 모두 서로를 챙길 여력이 없었으며 각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구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먼저 부모님은 현실을 직시하시고 전면전에 나서 야간에도 일자리를 찾으시는 등 해결책을 직접 탐색하기 시작하셨으며, 고등학생이었던 형은 귀가시간을 늦추고 집에서는 오로지 잠만을 청하며 현실을 외면해버렸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어린 나이의 나는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기에 당황하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마음 같아선 나 또한 가장인 척 한 마디 거들며 싸움판에 끼어들고 싶기도 했고, 친구들과처럼 컴퓨터 게임에 빠져 애써 현실로부터 도피해버리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내 손 안엔 맘 놓고 싸울 여유도, 다 잊고 즐길만한 동전 몇 닢도 남아있지 않았다.

너무나 일찍 알아버린 현실에 내가 선택한 도피처는 가방 속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문제집 몇 권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짜증 섞인 카드사 직원 목소리, 싸우다 지쳐 울먹이는 어머니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희망마저 가려 버리는 아버지의 담배연기가 방 안을 채울 즈음, 눈에 보이는 문제집이면 그 어떤 것이라도 꺼내 읽고 풀곤 했다. 그 문제집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치 않았다.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집이든 그렇지 않든 그 순간만큼은 불안하고 초조한 현실을 떨쳐버리고 집중할 수 있으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다. 한편 교과서를 꺼내 읽으며, 암기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선 소리 내어 읽고 그 소리를 내 귀로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애써 위안을 삼기도 했다. 내게 주어진 책임에 과하게 집중하고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작은 전쟁터에서 내가 찾은 유일한 지구책이었다. 행복교과서에서는 ‘몰입’의 특성으로 ‘외적인 조건의 망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 특성은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라면 어떤 것이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의미로, 특정 사건에 보다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몰입’의 보조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내겐 ‘몰입’이 가져다주는 부가적 효과가 가장 절실했으며, ‘몰입’을 선택하게 만든 가장 매력적인 요소였다. 결과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취미를 즐기고 행복한 시간에 폭 빠져 ‘몰입’을 배워가는 사람들에 비해, 내게 있어 ‘몰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부터 잠시 동안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탈출구였다.

그렇게 어떤 문제집에라도 몰입할 때면 내 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나와 문제만이 남아 고민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또한 고민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많은 호기심 덕분에

에 스스로에게 적극적으로 몰입을 던지며 나만의 학습법을 만들어 내고, 남들보다 빠르게 사고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몰입’을 이용했다면 ‘중독’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행복교과서 또한 ‘몰입’과 ‘중독’의 유사점을 들어 혼동하기 쉬운 개념임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개념의 유사성에서 나아가, 특정 행동에 빠져드는 것 그 이상으로 의미를 확장해나가고 보다 많은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간다면 ‘몰입’을 ‘중독’과 차별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어린 시절, 나 또한 배우고 익히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었다. 뿐만 아니라 ‘몰입’을 통해 먼저 터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몰입’을 통해 얻었던 일방향적 학습 성과를 쌍방향적 소통 소재로 활용하고 다함께 몰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확장시켜 나갔던 것이다. 특히 ‘몰입’하는 순간부터 배움을 나누는 순간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게 집중해온 시간들은 마치 뽀빠이를 통해 순식간에 지나온 찰나의 순간으로 기억되었다. 아무리 곱씹어 보더라도, 10여 년 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몰입’ 그 자체였다.

‘몰입’은 현대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고 변혁을 창조하는 구심점으로, 수많은 위인들의 필수적 성공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집중을 넘어선 사고의 심화와 의미의 확장이 가져다 준 그들의 남다른 새로운 시대의 막을 올렸으며, 의식주의 풍요로움과 더불어 삶의 여유를 선사해주었다. 이처럼 행복은 역사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일시적인 행복을 갈구하는 현대인들이 영구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몰입을 통해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혼자 하는 몰입이 가져올 즐거움과 사회적 변화는 기대이상으로 웅장할 것이라고. 「채약민」에서 약초꾼이 선계의 도에 몰입하여 인간계의 일을 잊고 득도 하였듯, 현대인들 또한 주변에 놓여있는 ‘몰입’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복을 향해 걸음걸음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과별 행복수업 적용 사례-미술과)



행복수업 적용사례 : 선생님편

<Sand Art>로 감사 메시지를 보내기

대전교육연수원 파견교사 반주영

CASE BASED LEARNING

1. 샌드아트 수업의 특징

샌드아트 수업은 현재 전국에서 한 두 곳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샌드아트 표현 경험을 가진 미술교사가 흔하지 않기도 하며, 재료 구입(비용)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 일반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작은 관심과 교사의 수고로도 학생들은 평생 한번 해 볼까 말까 하는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을 얻게 해 준다.

샌드아트는 암막이 있는 교실에서 진행한다. 마치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제공한다. 평소 소만하거나 거칠게 날뛰던 아이들도 순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되어 모래가 주는 감성에 손을 맡긴다. 드로잉 실력이 없거나 명암을 표현하지 못해도 모래와 빛이 만나 입체감이 저절로 표현된다. 손바닥, 주먹, 손톱, 손가락, 솜방망이 등이 원초적 붓이며, 빛이 주는 따뜻함과 신비로움이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실수하여 잘못 그렸을 때는 다시 모래를 덮어서 그리면 된다. 초등교육에서는 한 컷의 카툰이나 모래 일러스트레이션으로도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중등교육에서는 표현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수도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실시한 수업장면과 작품 결과를 나누고자 한다. 수업 대상은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 학생 30명으로 총 2차시에 걸쳐 수업한 것이다.

2. 수업의 전개

목표	1. 샌드아트의 점·선·면 기본 표현법을 익힐 수 있다. 2. 모래로 고마움을 담은 메시지를 표현하고 사진을 찍어 보낼 수 있다.
준비물	암막커튼 교실, 라이트 박스(모래포함), 멀티탭, 캠코더(교사용 라이트박스와 모니터로 연결), 카메라(학생)
유의 사항	1. 저학년 일수록 라이트 박스 사용을 주의하게 한다. 2. 모래 표현 과정에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점을 안내한다.

수업과정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샌드아트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 작품을 감상하기 (참조 사이트: http://blog.naver.com/sandsarang/220446749504) - 점,선,면 표현방법을 익히고 풍경그리기 실습하기 	
수업과정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림과 글자를 이용하여 표현하기 - 본인 작품을 사진 촬영을 하고 메시지로 보내기 	

3. 샌드아트 수업 과정 및 결과작품



그림 1 > 풍경 그리기 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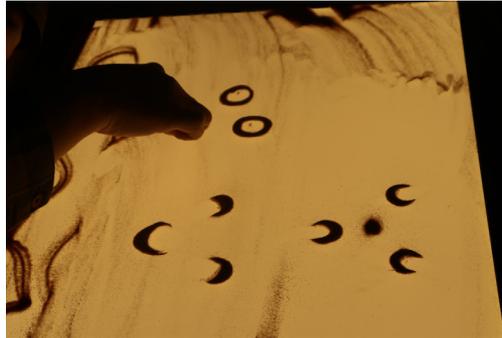


그림 2 > 눈,코,입 표현 실습



4. 수업의 효과

- 가. 놀이와 미술이 결합된 수업이다. 학생들이 몰입하고 호기심, 자율성을 통해 표현 성취감을 경험한다.
- 나. 모래치료와 감성표현이 결합된 수업이다. 손과 눈의 협응력과 자극을 즐길 수 있어 표현 과정에서 행복감을 갖는다.
- 다. 미술표현 능력이 크게 필요 없다. 몇 가지의 표현기법만 익히면 자신감을 얻는다.

5. 수업 일반화를 위한 재료준비 정보

- 가. 적용대상: 초중고 및 일반인 가능
- 나. 공간: 암막커튼이 있는 교실(암막 커튼이 없는 경우에는 식물재배에 사용되는 검은 비닐(멀칭)을 붙이면 된다.
- 다. 라이트 박스: 2~3인이 1개 사용이 가능하고 한 명은 촬영팀이 될 수 있음. 크기가 크지 않은 것이 좋음. 박스 개당 시중가 200,000원~350,000원.
- 라. 샌드: 샌드아트용 모래 1 포당 10,000원~15,000원 정도
- 마. 교사용 책: <샌드아트 쉽게 배우기> 도서 참조
- 바. 참조 사이트: 신미리 샌드아트 네이버 카페, 신미리 샌드아트 아카데미
- 사. 맨 프로토: 캠코더를 고정시켜 주는 삼각대이나 없어도 무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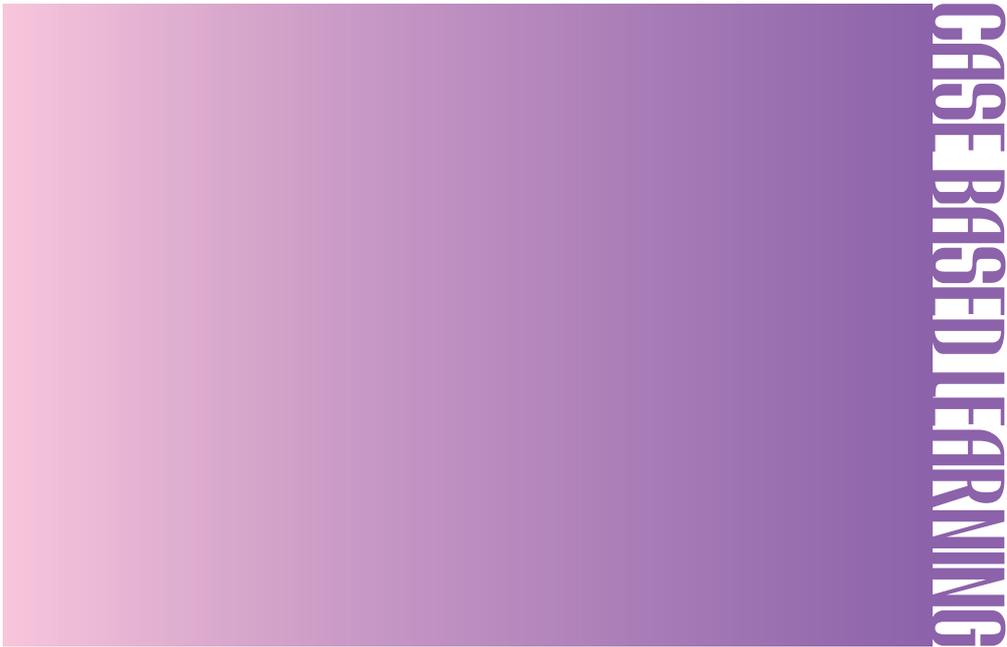
(교과별 행복수업 적용 사례-도덕과)



행복수업 적용사례 : 학생편

행복은 당연한 것을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현종(송운중학교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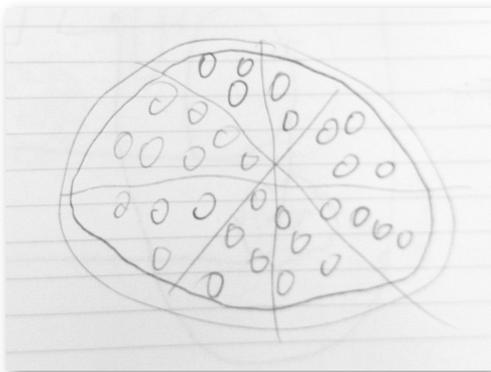
3월 10일 - 부모님이 나와 함께하심에 감사하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나의 부모님이 단 하루도 없다면 외로울 것이다. 고아를 생각해보자.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 사람이 뭔지 모르는 아이를 생각해보자.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비참하고 세상에 나 혼자 있다는 슬픔 때문에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가끔 부모님이 없으면..... 하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고 눈을 떴는데 보니 부모님이 없어!! 그럼 행복하고 기쁠까? 잠깐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공허함만이 남게 된다. 우리는 정말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도 다 말하지 못한다. 특히 부모님에 대한 사랑, 감사 말이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해주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그 감사, 사랑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우리 1학년 6반 친구들아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효도하며 사는 우리 6반 되자 화이팅!!!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3월 13일

오늘 엄마가 피자를 시켜 줘서 맛있게 먹었다. 매번 이렇게 맛있는 걸 시켜주시고 해주시는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



3월 14일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오늘은 아무 일 없이 학교에 무사히 등교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

3월 25일

오늘 친구하고 생일파티를 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미있게 놀 수 있어서 재미있고 기뻐다.



3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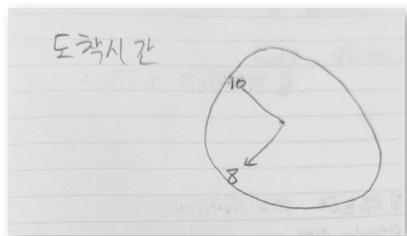
오늘 친구하고 자전거를 타기로 했는데 별로 타지 못하고 내가 다쳐서 슬프지만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 내가 크게 안 다쳐서 기쁘다.

3월 31일

오늘도 아침을 먹고 무사히 학교에 오고 친구를 만날 수 있어 기쁘다><

5월 1일

오늘 아침에 늦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등교해서 기쁘다



5월 2일

오늘 롤(게임)을 했는데 내가 캐리를 할 수 있는 실력이라 기쁘다



Upcoming Events

제 36회, 37회 행복교육 기초워크숍

차수	일자	교육시간	장소
1	2017년 8월 2일 (수) ~ 8월 3일 (목)	15시간	서울대학교 38동 글로벌 공학교육센터
2	2017년 8월 9일 (수) ~ 8월 10일 (목)	15시간	

기초워크숍 신청 문의 :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교육팀 박복미 연구원 (02-2038-0136)

2017년 2학기 행복교육 심화워크숍



날짜 : 9월 16일	날짜 : 10월 21일	날짜 : 11월 18일
학습챕터 : 2, 3, 4	학습챕터 : 5, 6, 7	학습챕터 : 8, 9, 10

*교육시간: 매차수 5시간씩 총 15시간



[중등교과서]



[초등교과서]

심화워크숍 신청 문의 :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교육팀
이윤희 연구원 (02-2038-0137)

Upcoming Events

제7기 교사행복대학 일정

차수	일자	시간	장소	비고
1차	2017.09.09.(토)	6시간	서울대학교	입학식
2차	2017.09.23.(토)	6시간	서울대학교	
3차	2017.10.14.(토)	6시간	서울대학교	
4차	2017.10.28.(토)~29.(일)	18시간	추후 공지	1박2일 워크숍
5차	2017.11.11.(토)	6시간	서울대학교	
6차	2017.11.25.(토)	6시간	서울대학교	
7차	2017.12.09.(토)	6시간	서울대학교	
8차	2017.12.23.(토)	6시간	서울대학교	졸업식

교사행복대학 신청 문의 :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교육팀 우정은 연구원 (02-2038-0134)



6기 충주 인등산 워크숍

Center News

최인철 교수님 제 8회 흥진기 창조인상 수상 (사회발전부문)

| 행복교과서 5년간 31만 권 보급
| 학생 96만 여명에게 행복수업



유민(維民) 홍진기(1917~86) 한국 최초 민간 방송인 중앙방송(TBC)을 설립하고 중앙일보를 창간해 한국 대표언론으로 탄탄한 기반 위에 올려놓았다.



수상소감

예,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내가 왜, 내가 왜 상을 받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사실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대단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니까 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조금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부터 운 좋게 제가 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상을 받는 이유를 찾지 못했던 이유는 제 안에서 답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 하고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행복을 가르쳐 보면 어떨까 하는 정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을 제안해주신, 그리고 제안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정말 넉넉하게 후원해주신,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도와주시는 그분. 또 일선에서 학생들에게 행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계시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선생님들, 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 저의 스태프들, 또 주말마다 나가서 일하는 아빠와 남편을 참아주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 분들을 보니까 저는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이분들은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부끄럽지만 그러나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과 또 자랑스러움으로 이 자리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행복을 가르쳐보자는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삶에 대해서 배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나누고 수상소감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교사들의 저력입니다. 단일집단으로 이 선생님들만큼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분들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사회에 큰 희망이 있다는 사실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돈의 가치에 대한 배움이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익명의 후원자 분들을 보면서 돈을 이렇게 멋지게 쓸 수 있구나, 돈이 착한 마음과 결합되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배운 두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는 '헌신'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은 급여도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나 제가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족의 힘에 대해서 또 역시 크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도 가족이 이해하고 지지해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게 돼서 그 힘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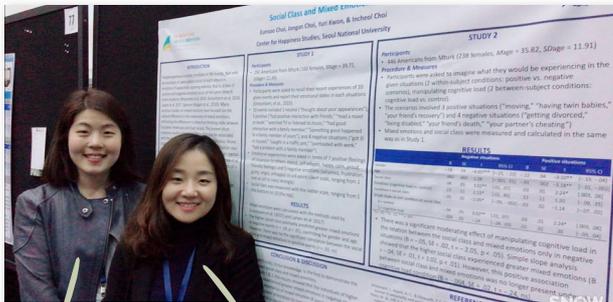


으로 이 상은 저 개인에 대한 상이라기보다는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 개인에 대한 상이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멈춤의 기회를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부터 한 번 가져보자 라고 하는 이 취지를 높게 사셔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흥진기 창조인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1571120>

Center News

권유리 선생님, 최은수 박사님 해외 학회 참석, 포스터 발표



최은수 박사님

권유리 선생님

정서 경험이 사회계층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한 연구를 포스터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사람들은 삶의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감정을 경험한다. 때에 따라서 사람들은 한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동시에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곤 하는데, 이러한 정서경험을 복합정서(mixed emotions)라 일컫는다. 기존의 연구들은 복합감정의 문화적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온 반면, 본 연구는 또 다른 사회적 맥락인 사회적 계층(social class)을 고려한 새로운 시도이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계급에 따라 사람들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본 연구는 복합정서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계급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 1의 결과, 사회적 계층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복합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연구 2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사회적 계층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상황을 인지적으로 복잡하게 처리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시사해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회]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일시: 2017년 5월 25일 (목) ~ 28일 (일)

장소: Sheraton Boston Hotel

[발표] Social Class and Mixed Emotions

저자: 최은수, 최종안, 권유리, 최인철

일시: 2017년 5월 26일 (금) 13:30 ~ 14:20

Center News

계간지 <서울대사람들> 2017 봄호 : 최인철 교수님 융합수업 소식

지
사
인
의
방

행복의
지표



최인철 교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이유 없이 작은 선물을
건네보는 일상의 작은 일이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김현섭 철학과 교수
최인철 심리학과 교수
장대익 자유전공학부 교수
(왼쪽부터)

최인철, 장대익, 김현섭 교수님이 모여 심리학, 진화학, 철학을 통해 행복의 의미를 고민하는
<융합강좌 : 행복> 수업에 대한 내용이 서울대 계간지 <서울대사람들>에 실렸습니다.
www.snu.ac.kr/SNUmedia/people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행복교육포털'을 오픈합니다

'행복교육 포털'은 행복교육에 관한
선생님의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행복교육 워크숍"을 **신청**하고 싶은데 언제 진행되지?

"행복수업 자료"를 **다운**받고 싶은데 어디서 받을 수 있지?



나의 "행복수업현황"은 어떻게 되지?

"행복에 관한 최신 사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지?



"행복교육포털사이트"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숍 신청



행복교육자료실



최신행복뉴스



행복수업 관리



www.happinessclass.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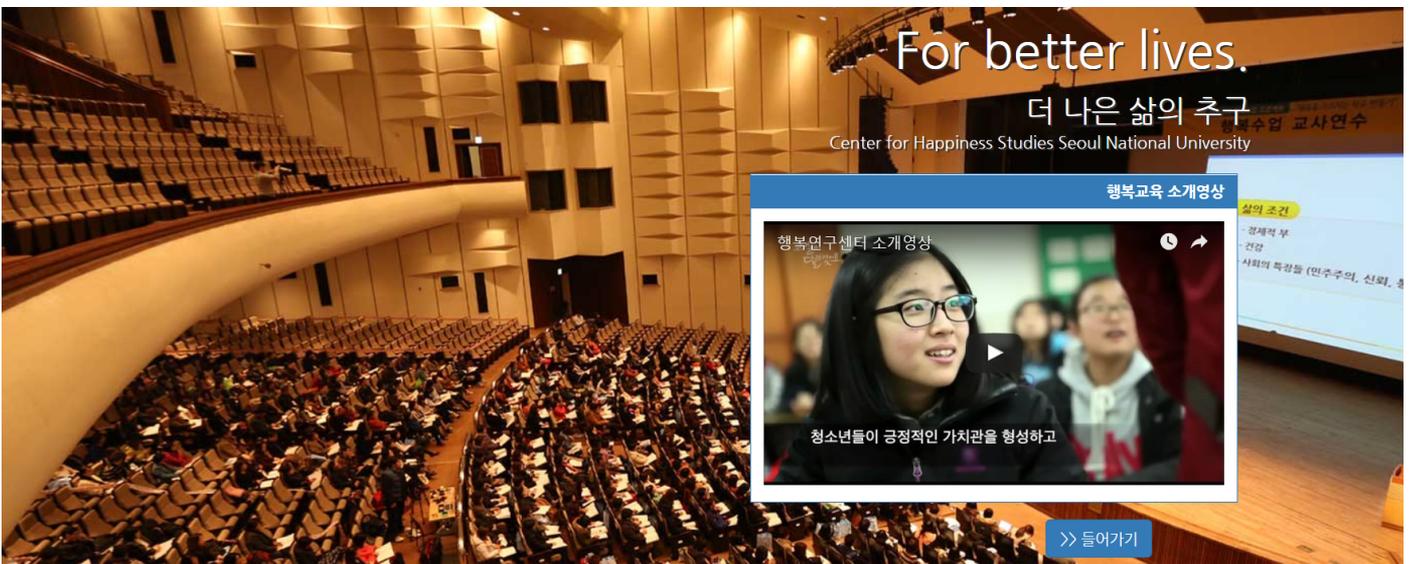
행복교육포털 사이트 (2017.7.10.)

오픈기념 EVENT

기간 | 2017.7.17.(월) ~ 31.(월)

대상 | 행복교육 워크숍 1회 이상 이수한 교원 모두

방법 | '행복교육포털' 사이트 접속 후, '최초 사용자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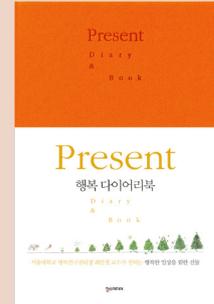


참~ 쉬운 '최초 사용자 등록' 방법



최초 사용자 등록해주신 선생님 중
10분을 추첨하여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행복비타민이 행복교사에게 Double Dream 패키지를 선사합니다!



행복다이어리북(만년판)
무료 증정

이유1 통계자료에 의하면
(출처: happinessclass.snu.ac.kr/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행복교육 포털)
행복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22개교 달성 기념



이유2 행복가교(행복을 가르치는 교사 모임) 런칭 기념

(사)행복가교는 어떤 모임인가요?

행복가교는 행복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의 단체이며 교육현장에서 행복수업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행복교육에 힘써 교육공동체의 바른 인성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행복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임

행복가교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행복가교에서는 행복수업의 이론 탐색과 연구 역량강화를 위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행복수업을 전개하며 행복수업 연수와 지원, 행복교과 연구 발간을 합니다. 그 외에도 행복교육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을 하고 교사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을 합니다.



행복가교 특별회원이신
한창영 대표(주)아이헤드)께서
행복교사 선생님께 선사합니다.

행복비타민 행복교사용 Double Dream 패키지 구매방법

1단계: 구매페이지 접속



2단계: 구매



*관련문의 및 전화구매 시: 070-7727-4584
 행복비타민 바로가기: www.happytamin.com

(주)아이헤드 - 행복비타민
 into Happiness and Health Every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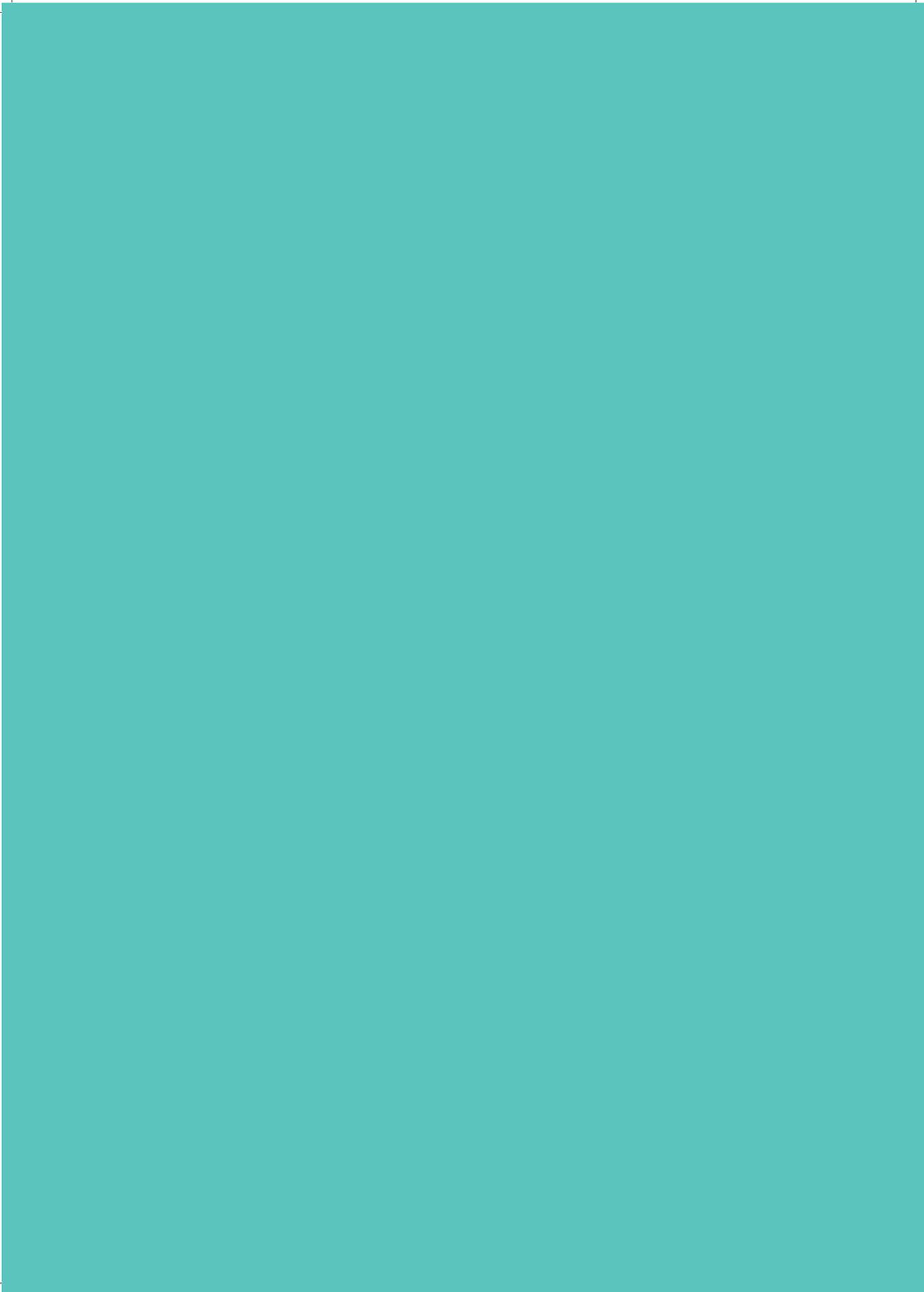
발행일 2017년 7월 15일
발행인 최인철
편집인 박복미
발행처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디자인 박복미 배완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20동 643호 행복연구센터
Tel : (02)880-6436 Fax : (02)877-6391 <http://www.snuhappiness.kr>

Interactive Marketing Agency **ADmission**

 **애경** | 애경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icons made by Freepik from www.flaticon.com





For better lives.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Center for Happiness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 L A N T I N G
H A P P I N E S S

*PLANTING HAPPINESS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뉴스레터 브랜드입니다.

2017
vol.2
(Total Vol.54)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Center for Happiness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20동 643호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Tel : (02)880-6436 Fax : (02)877-6391
<http://www.snuhappiness.kr>